

#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 『그 후(それから)』 론

—人爲的인 規範과 自然의 本性을 중심으로—

姜 賢 模\*

(e-mail: asahii@hanmail.net)

---

### 目 次

---

1. 서론
  2. 아버지 나가이 도쿠(長井得)의 위선적인 삶
  3. 세속적인 삶에 영합한 히라오카(平岡)
  4. 다이스케(代助)의 고뇌
  5. 결론
- 

## 1. 서 론

『그 후(それから)』는 『산시로(三四郎)』 『문(門)』과 함께 아사히(朝日)신문에 발표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 : 이하 소세키)의 전기 삼부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작품으로, 『산시로』와 『문』에서는 볼 수 없는 소세키의 걱정적이고 강렬한 의지가 표출되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후』의 바로 전에 발표된 『산시로』의 예고문에서 ‘그저 평범하다. 아주 희한한 것은 쓸 수 없다’<sup>1)</sup>고 서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저 평범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작

---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일본근대문학

1) 夏目漱石(1979) 『漱石全集第21卷』 岩波書店 p.185. 본 논문에 인용된 일본어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필자에 의한다.

품이다.

삼강오륜은 유교 도덕사상의 기본이다. 이것은 君臣, 父子, 夫婦, 長幼의 관계와 친구의 관계에 대한 윤리관을 규정짓고 있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봉건적인 구시대의 일본에서는 절대적인 윤리강령으로, 모든 사회규범과 관습은 유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유교적 규범은 이타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지배논리의 사고로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고 있다.

소세키는 『그 후』에서 사랑과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를 거역하고 신의를 지켜야하는 친구를 배신하는, 즉 반유교적인 윤리관으로 사회적인 관습을 역행하고 있는 다이스케(代助)를 『그 후』의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이스케가 친구인 히라오카(平岡)에게 ‘미치요(三千代)씨를 사랑하고 있다’(242)<sup>2)</sup>며 자신에게 ‘미치요씨를 달라’(244)고 요구하는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버지가 정해준 다이스케의 혼처는 결혼과 함께 상당한 재산까지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예전에 아버지가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는 지방도시의 명문가인 사가와(佐川) 가문의 딸이다. 그녀와 결혼을 한다면 아버지는 옛 은인에게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동시에 경제적 생활력이 없는 다이스케의 장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

다이스케의 형과 형수 또한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다이스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친구인 히라오카 역시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아도 될 것이고, 다이스케 자신이야말로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고등유민과 같은 여유로운 생활을 계속하여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이스케가 아버지의 뜻에만 따라준다면 주위 사람 누구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

제러미 벤덤<sup>3)</sup>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며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주장하였다. 공리주의에서는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도덕적 주장은 반드시 행복 극대화를 전제해야 한다’<sup>4)</sup>고 말한다. 벤덤에 있어서 다수의 행복인 공리는 곧 옳이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이러한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다수의 행복을 단호히 거부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병약한 미치요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고 있다. 고뇌 끝에 내린 다이스케의 결단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결

2) 본 논문은 夏目漱石(1979) 『漱石全集第8卷』 岩波書店을 텍스트로 삼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쪽수를 나타낸다. 이하 같다.

3) 제러미 벤덤(Jeremy Bentham, 1748- 1832) : 영국의 법학자이자 철학자, 변호사이다.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를 표방했다.

4) 마이클 샌델(2011)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p.55

코 자신의 뜻을 희생하지 않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sup>5)</sup>는 공리주의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도덕이란 행복극대화를 비롯한 어떤 목적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샌델은 『무엇이 정의인가』에서 ‘도덕은 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sup>6)</sup>이라고 칸트의 도덕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이스케의 결단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그 후』는 미치요를 사이에 두고 다이스케와 히라오카간의 삼각관계적인 연애소설<sup>7)</sup>이라든가 심지어는 간통<sup>8)</sup>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논문들도 적지 않다. 또한 고바야시 이치로(小林一郎)는 다이스케가 「유교적인 윤리」에서 새로운 「윤리」를 시도한 것<sup>9)</sup>이라는 ‘초 윤리성’<sup>10)</sup>에 대하여 논했으며, 가메이 쇼이치로(亀井勝一朗)는 다이스케의 모습을 ‘지식인의 초상’<sup>11)</sup>으로 논하고 있다. 이외에 미치요를 중심으로 한 논들도 많이 있지만 필자는 칸트의 도덕론과 함께 儒家사상과는 상대적인 老莊사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세키와 노장사상에 대한 연구로는 오카자키 요시에(岡崎義恵)의 『소세키와 칙천거사(漱石と則天去私)』에 여러 곳의 언급이 있으며, 또한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의 「소세키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漱石における東洋と西洋)」에서는 소세키의 초기 논문인 「노자의 철학(老子の哲学)」에 대한 소개와 비평이 있다. ‘근년에 있어서 이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에토 준(江藤淳)으로 「소세키와 중국사상(漱石と中国思想)」에서 『미치쿠사(道草)』의 세계와 더불어 칙천거사를 노자에 의하여 포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12)</sup>고 시미즈 다카요시(清水孝純)는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소세키의 노장사상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노자의 철학」과 ‘칙천거사’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주체인 아버지 나가이 도쿠(長井得)와 친구인 히라오카, 그리고 다이스케의 의식구조를 인위적인 사회적 규범과 인간이 지닌 자연의 본성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옳이란 무엇이며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소세키가 『그 후』를

5) 임마누엘 칸트(Immanu디 Kant) : 독일의 철학자.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비판철학을 탄생시켰다. 저서에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비판』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등이 있다.

6) 전개주 4) 『정의란 무엇인가』 p.149

7) 山本勝正(1989) 『夏目漱石文芸の研究』 桜楓社. p.106

8) 太田 登, 木股知史, 万田 務 訳(1991) 『漱石作品論集成 第6巻』 桜楓社. p.150 에서 오오카 쇼헤이(大岡昇平)는 「간통의 기호학(姦通の記号学)」이라는 논문을 실고 있다.

9) 小林一郎(1991) 『夏目漱石の研究』 至文堂 p.71

10) 전개주 9) 『夏目漱石の研究』 p.76

11) 전개주 8) 『漱石作品論集成 第6巻』 p.9

12) 清水孝純(1998) 『漱石 そのユートピア的世界』 翰林書房 p.16

통하여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관과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규명할 것이다.

## 2. 아버지 나가이 도쿠(長井得)의 위선적인 삶

『그 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 끝에 의절까지 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이스케와 아버지 나가이 도쿠의 의식구조와 그 차이를 분석하고, 이 비극적 상황을 통하여 소세키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이스케의 아버지 나가이 도쿠는 구시대 영주에게 봉공하던 무사기질의 노인으로 ‘과거의 역사 이외에는 한 발짝이라도 더 앞으로 내딛는 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는’(32) 완고하고 가부장적인 인물이다.

나가이 도쿠는 메이지(明治) 유신당시의 전쟁에 참가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며 담력과 배짱을 인간의 최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담력과 배짱을 내세우는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자란 다이스케는 자신이 겁쟁이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을 뿐 ‘겁쟁이로서 부끄럽다고 하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는’ 인물로 나가이 도쿠와는 현격한 의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이스케는 두려운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본래의 모습’(18)이라고 믿고 있다. 본래의 모습이란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근본으로 돌아간 자연의 모습, 인간 본성의 모습인 것이다. 다이스케는 두려운 것을 두렵지 않다고 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신경이 미성숙 된 촌사람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18)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을 속이는 아버지를 위선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산시로』에서 히로다(広田) 선생이 산시로(三四郎)에게 들려주는 위선자 론이다.

(전략)우리들이 학생시절에는 하는 일 모두가 어느 것 하나 타인을 떠난 적이 없었지. 모든 것이 천황이라든가 부모라든가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전부 타자본위였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받는 자가 하나같이 모두 위선자였어. 그 위선이 사회의 변화로 마침내 지속될 수 없는 결과 점점 자기본위를 사상행위에 수입하자 이번에는 자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발전해 버렸지. 옛날의 위선자에 대하여 요즘은 노악가(露悪家)만의 상태가 되었지.(하략)<sup>13)</sup>

13) 夏目漱石(1979) 『漱石全集第7卷』 岩波書店 p.140

노약가는 위선에 대립되는 자신의 결점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일컫고 있는 소세키의 조어으로써, 소세키는 『그 후』에서 두려움을 담력으로 감추고 있는 아버지 나가이 도쿠의 위선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아들 다이스케의 노약을 대립시키고 있다. 또한 다이스케를 ‘구시대의 일본을 훨씬 앞서가고 있는’(6)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구시대의 위선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봉건적인 구시대의 일본사회 규범은 이타적인 관습이 지배하고 있었다. 전체를 위하여 개체가 희생되어야 하는 타자본위는 위선을 강요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관습으로서, 그것은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하는 공리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다이스케와 아버지의 대립적인 시각은 타의에 의하여 은행을 그만두고 돌아온 히라오카에 대한 인식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안에 걸려있는 ‘참됨은 하늘의 길이다(誠者天之道也)’라는 액자 속의 글처럼 오로지 성실하고 열성적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던 터였다. 이 액자는 옛날 번주(藩主)의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가 열과 성을 다해서 재정을 복구시킨 공로로 번주로부터 받은 하사품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아버지는 히라오카의 실패가 성실과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히라오카가 실패한 것은 ‘결국 먹고살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며 ‘성실과 열성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는 일도 있다’(31)고 말한다.

아버지 나가이 도쿠는 먹고살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성실히 열성을 다하여 일한다는 것은 잘살기 위한 것이고 성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의 노동은 결국 먹고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먹고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성실에 대한 다이스케의 부정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다이스케에게 있어서 성실과 열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문제이다. 나가이 도쿠는 일을 성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실과 열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다이스케의 성실과 열성은 그 자체가 정당성을 갖는 목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藩主의 재정을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실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번주나쁜 자인데도 열과 성을 다해서 그를 돕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이 된다.

나가이 도쿠는 젊었을 때, 술에 취하여 칼을 빼들고 그의 형에게 덤벼드는 무사를 죽였던 일이 있었다. 그는 이일을 다이스케에게 몇 번이고 자랑삼아 이

야기하고 있다. 덤벼드는 무사를 죽이고 무사를 죽인 자신들도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그는 그러한 당시의 행동에 대하여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나가이 도쿠에게 그러한 행동, 그러한 관습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살인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할복을 해야만 하는 것은 무사의 규범이다. 나가이 도쿠에게는 다만 시대적 관습과 규범에 따른 당연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다이스케는 아버지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하여 ‘논어니 왕양명이니 하는, 금을 두드려 편 것 같은 사상’(33)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논어는 유가의 기본 경전이며 왕양명 또한 대표적인 유학자이다.

신영복은 ‘동양사상의 정체성은 논어보다 오히려 노자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노자의 핵심사상은 되돌아가는 것(歸)이라고 한다. 歸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며 ‘근본은 자연’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유가 사상은 인문주의, 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인 서구 사상과 마찬가지로 ‘進의 사상’<sup>14)</sup>이라고 한다. 다이스케는 이것을 금을 두드려 편 것 같이 원론적인 것을 나열만 한 사상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유가에서는 인위적인 제도와 규제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였다. 자유로운 인성을 인위적인 제도와 규제로 속박하고 있는 것이 유가의 사상이다. 중국의 학자 리쩌호우(李沢厚)는 유가의 사상을 ‘자연의 인간화’라고 말하는 반면 노장사상을 ‘인간의 자연화’라고 말하고 있다. 자연의 인간화란 ‘인간의 자연성은 반드시 사회성에 부합되고 스며들어야만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자연화란 인간은 반드시 사회성을 버려 그 자연성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sup>15)</sup>는 것이다.

구시대적 관습과 규범은 이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것은 타인분위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다이스케의 유가에 대한 폄하는 바로 타인분위의 삶, 즉 유가사상인 ‘자연의 인간화’를 거부하는 것이며 노장사상인 ‘인간의 자연화’에 대한 소세키의 지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실함은 그 자체가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은행에서 승진되기 위하여 성실한다거나 영주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는 생각으로 성실과 열성을 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세키는 유교의 사상이나 진리가 자신의 영달이나 생활의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의 이러한 의식은 다이스케의 결혼을 둘러싼 아버지와의 대립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4) 신영복(2011) 『강의』 돌베개 p.253

15) 李沢厚(1990) 『華夏美学』 동문선 p.115

나가이 도쿠는 아들인 다이스케에게 지방의 명문가이며 과거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사가와(佐川)의 딸과 결혼할 것을 요구한다. 사가와 집안은 지방의 토호로서 상당한 재산가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다이스케에게 독립할 수 있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사가와와 딸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 것’(112)이라고 말한다. 또 서양에 갈 생각은 없느냐고 묻고 다이스케가 그것도 좋겠다고 찬성의 뜻을 보이자 역시 결혼을 선결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승낙의 뜻을 나타내지 않자 조금은 내 생각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역정을 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이치를 따지면 참고삼아 말하지만 너는 이제 서른 살이다. 서른이나 되어서 멀쩡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대충 알 것이다. 그야 지금은 옛날과 달라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었지만 독신으로 지냄으로 해서 아버지나 형제가 피해를 입거나 결국은 너 자신의 명예에 관계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셈이냐.(113-114)

나가이 도쿠에게 있어서 다이스케의 결혼은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체면과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사가와 가문의 딸을 선택한 이유도 옛 은공을 입은 가문의 딸이기 때문이며, 재산가의 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또 생활력이 부족한 다이스케에게 재산을 마련하여 주기 위한 수단이 되는 사가와 딸과의 결혼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나가이 도쿠에게 아들의 결혼과 사가와와 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방편이 되며 수단이 되고 있다. 아들의 결혼을 핑계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나가이 도쿠는 위선자이며, 이러한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 다이스케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을 거부하는 것이다.

미치요에 대한 다이스케의 사랑은 ‘자연의 사랑’(167)이다. 야마모토 가쓰마사(山本勝正)는 자연이라는 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으로, 자연의 사랑이란 ‘신성한 사랑이며 참사랑’<sup>16)</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의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두려움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적인 사랑인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나가이 도쿠가 생각하는 타산적이고 위선적이 사랑이 아니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 결 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sup>17)</sup>고 했다. 마이클 샌델은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그

16) 전계주 7) 『夏目漱石文芸の研究』 p.118

17) 전계주 4) 『정의란 무엇인가』 p.171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자율적 존재이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sup>18)</sup>고 칸트의 도덕론을 설명하고 있다.

나가이의 위선은 이런 칸트의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마땅히 자신의 태양계에 속해 있어야 하며 자기는 어디까지나 다이스케의 궤도를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다’(30)는 아들에 대한 종속적인 지배의식 또한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칸트의 도덕론과 대립하고 있다.

결국 다이스케는 사가와 가문의 딸이 아니라 히라오카의 아내 미치요를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와 의절하게 된다. 이러한 다이스케의 결단은 그 자신이 아버지에게 종속지배적인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본성적인 행동이 아닌 위선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이스케의 결단은 곧 소세키의 사상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그 후』에서 소세키가 추구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관은 공리주의를 거부하는 칸트의 도덕론, 그리고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노장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가 인간의 자율성을 인위적인 제도와 규범으로 제한하고 있는 유교의 윤리관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타인본위이고 위선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이스케의 결단을 고바야시는 ‘종래의 관습인 사대부적 道義, 즉 유교적 윤리에서 새로운 윤리를 주장하는 지렛대이며 시도<sup>19)</sup>라고 논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화된 자연을 본래의 자연 본성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신영복은 ‘중국의 사상은 지배담론인 유가사상과 비판담론인 노장사상이 두 개의 축을 이루고 있다<sup>20)</sup>고 말한다. 따라서 유가사상에 대한 소세키의 부정적인 시각은 노장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노장사상은 소세키의 새로운 윤리의 시도라 할 수 있다.

### 3. 세속적인 삶에 영합한 히라오카(平岡)

『그 후』에서 또 다른 대립의 축은 다이스케와 친구 히라오카와의 대립적 구도이다. 소세키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신기할 정도로 부드러운’(6) 머리칼

18) 전계주 4) 『정의란 무엇인가』 p.152

19) 전계주 9) 『夏目漱石の研究』 p.71

20) 전계주 14) 『강의』 p.253



에 험담한 외모의 소유자인 다이스케와 ‘박박 깎은 머리’(14)에 육십 킬로그램 가까운 체중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히라오카의 대립적인 외모를 묘사하고 있다.

소세키는 또한 몇 년간의 직장생활로 사회경험이 풍부하여 더욱더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히라오카와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생활의 경험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며 ‘세속적인 통념’에 빠져 있던 청년시절의 지론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던진’(18) 다이스케를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간의 갈등에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 은행에 근무했던 히라오카는 부임 초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지점장의 견제로 인하여 불만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이 주위의 분위기와 융화되어’(20)지점장과의 트러블도 없어지게 되고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하여 갔다. 그것은 히라오카의 세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속적인 통념을 멀리 벗어나 있는 다이스케와 대립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의식의 차이는 노동이라는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빈둥대며 지내는 다이스케는 ‘모든 신성한 노동이란 빵과 무관하다’며 살기위한 노동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히라오카는 먹고살기 위한 것이니까 맹렬하게 일할 생각이 든다’(78)며 이를 반박한다.

‘맹렬히 일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실하게 일하기는 어렵지. 먹고살기 위해 일한다고하면 먹고사는 것과 일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나.’

‘물론 먹고사는 쪽이지.’

‘그것 봐. 먹고사는 것이 목적이고 일하는 것이 방편이라면 먹고살기 쉽게 일하는 방법을 맞추어갈 것은 당연하겠지.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일을 하든 관계없이 그저 빵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것으로 귀찮 되지 않을까. 노동의 내용이나 방향 내지는 순서가 다른 것의 간섭을 받게 되는 이상, 그러한 노동은 타락한 노동이라 할 수 있어.’

‘여전히 이론적이군. 그렇다고 그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지 않은가.’(78)

소세키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 목적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이스케는 노부나가(信長)<sup>21)</sup>의 요리사를 예로 들어 타락한 노동을 설명

21)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 일본의 전란기인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의 무장이자 다이묘(大名)이다. 혼란기였던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하여 전란을 종식시키는 초석을 이루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및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그의 뒤를 이어 일본의 봉건제도를 확립하였다.

한다. 요리사는 최고의 요리를 만들었지만 노부나가는 맛이 없다며 야단을 친다. 그래서 요리사가 적당히 이 삼류의 요리를 만들자 맛있다고 칭찬을 한다. 다이스케는 ‘생활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빈틈이 없지만, 자신의 기예인 요리 그 자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 보면 매우 불성실한 것 아닌가. 타락한 요리사가 아닌가’(78) 라며 노동의 수단화를 거부하고 있다. 요리사의 기본은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부나가의 요리사는 해고되지 않기 위하여 노부나가의 입맛에만 아부하고 있다.

히라오카는 이러한 다이스케의 설명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는 먹고살기 위해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근무할 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자 현실과 타협해버렸다. 히라오카는 노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는 노부나가 요리사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히라오카의 수단론적인 의식은 아무리 자신의 뜻이 옳다고 해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옳지 않은 것과는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라 할 수 있으며, 세속적인 현실과의 영합이라 할 수 있다.

소세키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의 노동은 타락한 노동이라고 규정했다. 타락한 노동은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그리고 세속적인 삶과 영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라오카와 노부나가의 요리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든 결혼이든 노동이든, 그 외의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할 때, 그것은 세속적인 삶과 영합하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세속적인 삶이란 현실사회의 통념에 의한 삶으로 자기분위가 아닌 타인분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타인분위의 삶이란 강요된 이타적인 삶으로, 그것은 위선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다. 소세키는 『산시로』에서도 ‘대단한 친절을 받고도 불쾌할 때가 있다’라며, 그것은 ‘형식만은 친절하지만 친절자체가 목적이 아닌 경우’<sup>22)</sup>라고 서술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이와 같은 목적과 수단에 대한 것을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의 도덕적 개념이 인간에게는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존재가치를 말하고자 한 것’<sup>23)</sup>이라며, 「도락과 직업」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다. 형식만이 친절하다는 것은 위선적인 친절이다. 따라서 현실과의 영합은 위선적인 삶인 것으로, 소세키가 수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삶의 거부이며 타인분위의 삶, 위선적인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히라오카는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한 끝에 한 신문사의 경제부 기

22) 전계주 13) 『漱石全集第7卷』 p.141

23) 전계주 9) 『夏目漱石の研究』 p.57

자로 입사하게 된다. 경제 분야를 담당하게 된 그는 경제계의 어두운 이면들에 대하여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은연중에 다이스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내막을 알고 있는 듯이 다이스케에게 내비친다.

‘실은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하고 다이스케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히라오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불안한 눈초리로 다이스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그야 나도 이전부터 어떻게든 해볼 생각이었지만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주게. 그 대신 자네 형님이나 아버님 일도 이렇게 쓰지 않고 있는 거니까.’ 하고 다이스케에게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다이스케는 어처구니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증오를 느꼈다.(179)

히라오카는 다이스케의 ‘할 말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꾸어간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일 것이라고 착각하여 형편이 좋아지면 갚을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이스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미치요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었지만 히라오카는 착각을 했던 것이다. 히라오카는 꾸어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대신 형이나 아버지의 비리를 기사화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타락한 노동은 이처럼 인간마저 세속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다이스케가 느낀 증오는 타락한 노동, 타락한 인간, 세속적인 속물인간에 대한 증오인 것이다.

집에서는 미치요가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히라오카는 직업상의 교체를 이유로 요릿집을 전전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 이유의 또 다른 하나는 ‘집에 들어가도 아무 재미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히라오카에 있어서의 가정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미치요와의 결혼 역시 자신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이스케는 미치요가 돈을 꾸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 미치요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세키는 ‘미치요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 수단으로서 돈을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84)고 다이스케의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돈을 이용하여 그녀를 수단화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오직 곤경에 처한 미치요 자체가 목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은 다이스케가 미치요와의 관계를 히라오카에게 털어놓은 후, 사실대로 말했으니 처분을 맡긴다고 말했을 때, 히라오카가 보인 반응이다.

히라오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다이스케 앞으로 얼굴을 들이대며 말했다.

‘나의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을 거라고 자네는

생각하는 건가.’ 이번에는 다이스케가 대답하지 않았다.

‘법률이나 사회의 제재는 나에게도 아무 소용없어.’ 하고 히라오카가 계속했다.

‘그럼 자네는 당사자들만으로서 명예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는가를 묻는 것인가.’

‘그렇지.’(241)

히라오카에게는 두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훼손된 명예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의 회복방법에 대하여 다이스케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떠난 미치요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히라오카의 모습이다. 히라오카에게 미치요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부과된 형식적인 껍질에 불과하다. 그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이스케는 미치요가 법적으로는 히라오카의 소유일지 몰라도 ‘물건이 아닌 인간이니까 마음까지 소유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기’(242) 때문에 ‘본인 이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애정의 정도나 대상을 명령할 수는 없으며 남편의 권리가 거기까지 다다를 수는 없다’(242)고 단언하고 있다.

인간은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마땅한 이성적 인격체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며, 아내 또한 남편의 소유물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관습에서는 지배와 피지배로 종속되어 있다는 통념으로 관습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이스케가 ‘미치요씨를 달라’고 히라오카에게 요구한 것은 이러한 구시대적인 관습에 대한 소세키의 단호한 부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구시대적인 관습에 젖어 세속적인 삶과 영합하고 있는 히라오카, 그리고 세속적인 통념을 벗어던진 진화된 인간 다이스케, 그들의 상대적 의식을 통하여 소세키는 구시대적 통념에 사로잡힌 현실사회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키의 히라오카에 대한 부정은 대상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본성을 지닌 인간을 인위적인 규범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부정이다. 또한 그것은 위선적이고 타자본위적인 삶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 4. 다이스케(代助)의 고뇌

『그 후』에서 다이스케는 이지적인 외모와 함께 ‘구시대의 일본을 훨씬 앞

서가고 있는' 진보적인 의식의 소유자로 설정되고 있다. 또한 '히라오카의 그것과는 거의 연고가 없는 자기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만큼 진화해 있었다'(22)고 하는 것으로, 소세키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면에서도 아버지 나가이 도쿠, 그리고 히라오카와 상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다이스케가 아버지와 형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을 떠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는 설정은 그가 세속적인 통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독한 인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이스케의 진화는 삼년 전 미치요와 결혼하여 지방 근무지로 떠나가는 히라오카 부부를 배웅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이스케는 그때,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히라오카의 득의만만한 눈빛을 보자 '갑자기 그 친구가 미워졌다'(16)고 한다. 친구에 대한 미움이 다이스케의 의식적 진화의 시작이다.

다이스케는 히라오카에게 미치요와의 관계를 털어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었어. 자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미래를 희생시키더라도 자네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이 친구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잘못이었던 거야. 지금만큼이라도 사고가 성숙해 있었다라면 더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애석하게도 아직 어렸기 때문에 너무 자연을 경멸했었지. 나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회스러워.’(243-244)

그 때라는 것은 다이스케가 미치요를 사랑하면서도 히라오카와의 결혼을 주선하여 주었던 삼년여의 전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다이스케는 왜 미치요를 히라오카에게 보냈던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친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한 이타심의 발로였으며, 그 이타심은 자연본연의 행위가 아닌 자연을 경멸하는 행위로, 지금의 다이스케는 그 행위를 후회하고 있다. 삼년 전의 이타심에 의한 행동을 사고의 미성숙에 의한 것이라며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스케는 그 때의 자신을 ‘그 때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46)고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스케의 아버지 나가이 도쿠는 봉건시대적인 구시대의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 다이스케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유교의 감화를 받은 아버지’(27)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가장 현실과 동떨어진 도덕교육’(106)을 받았다.

유교는 지배계급의 정치논리이기 때문에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며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타적인 삶을 규정하고 있는 사상으로, 개인보다는 국가, 사회, 가정과 같은 타자우선의 삶을 강요하는 세속적인 통념을 일반규범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친구 관계는 삼강오륜에 의하여 신의와 믿음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는 강

력한 이타적인 관계로서 성립된다.

다이스케 역시 친구 히라오카와의 사이에는 ‘언제나 일종의 희생을 내포하고 있다는 확신’(16)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치요를 히라오카에게 보낸 것은 당연한 자기희생으로 ‘나도 그 때는 유쾌했다’(243)고 회고한다. 그러나 지금의 다이스케는 그 때를 후회 하고 있다. 그것은 이타적인 관습에 사로잡혀 자신의 자연스런 본성을 속였던 위선적인 행동, 즉 ‘자연을 경멸’했던 행위를 후회하는 것이다. 다이스케는 그 잘못된 행위를 되돌리기 위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고민과 고뇌의 고통에 시달린다.

자연의 아들이 될 것인가,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인가. 다이스케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186)

다이스케는 미치요와의 관계를 ‘하늘의 뜻’(185)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규범에는 반하는 것이다. 의지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을 버리고 인간의 규범에 따라 사가와와 딸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될 경우, 아버지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고 가족 모두와 히라오카의 일상적인 평온, 즉 최대다수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장 증진시킬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최고의 미덕’<sup>24)</sup>이라고 역설하였다. 즉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개체인 개인은 희생되어 마땅하다는 논리로서 최대의 공리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이다. 공리주의는 전체를 위하여 개체의 희생을 강요한다. 소수와 약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수와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계급논리는 유가의 사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인위적인 틀, 즉 획일적인 기준과 표준에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을 맞추는 ‘자연의 인간화’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장사상에서는 자연적인 인간을 이러한 인위적인 규범으로 강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노자의 ‘도덕경은 박애와 정의, 즉 仁義를 도덕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유가, 특히 맹자의 사상에 반대했다’<sup>25)</sup>고 한다. 장자 또한 ‘道는 어떤 대상을 욕구하거나 사유하지 않으므로 無為하고 스스로 자기존재를 성립시키며 절로 움직인다’<sup>26)</sup>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노장사상의 기본원리를 말하고 있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인간 본성

24)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서병훈 역(2011) 『공리주의』, 책세상 p.40

25) 푸페이룽(傅佩榮) 한정선 譯(2012) 『노자를 읽고 장자에게 배운다』 知와사랑 p.8

26) 전계주 25) 『노자를 읽고 장자에게 배운다』 p.9

에 따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따르게 되면 가족과 친구, 사회 모두로부터 고립되고 그가 경멸했던 빵을 위한 저열한 노동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감자를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면 인간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다이스케는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앞으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만일 금전적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면 그는 싫어도 다이아몬드를 던지고 감자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는 자연의 사랑만이 남을 뿐이다. 그 사랑의 대상은 남의 아내였다.(167)

소세키의 이 문장은 세속적인 삶을 경멸하며 고상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했던 자가 그 도덕 가치를 손에 쥐는 순간, 세속적인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지마(但馬)에 살고 있는 다이스케의 친구는 졸업하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껏 한 번도 도쿄에 온 적이 없었다. 도쿄에 오고 싶었지만 결국 부모의 뜻에 따라 어느 재산가의 딸과 결혼하여 아이까지 두고 있다. 다이스케는 그 친구가 보내주는 은어나 꽃감의 답례로 책을 보내주었다. 한동안은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비평을 보내곤 했지만 이제는 책을 읽지도 않을뿐더러 책의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다이스케는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친구가 ‘당시와는 정반대의 사상과 행동에 지배되어 다른 음식의 생활’(148)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는 긍정하고 있다. 소세키가 ‘이론적으로만’이라고 한 것은 가슴으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상과 행동에 지배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선택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유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결단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의식을 지배당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지의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아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아들이란 인위적인 규범에 따르는 의지의 인간이 아닌 자연스런 본성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그의 선택은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미치요를 히라오카에게 양보했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의 진화이며, 인위적인 규범의 유교사상으로부터 자연 본성의 노장사상으로의 진화인 것이다. 소세키가 ‘진화의 이면에는 반드시 퇴화가 있다’(22)고 서술하고 있는 것도 노장사상으로 진화한 다이스케의 이면에는 유교사상의 퇴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이스케는 선택을 결단했지만 미치요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아파 누워있

다. 숭고한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갔지만 결과는 세속적인 삶으로의 추락이다. 소세키는 『그 후』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립무원의 처절한 상황에 처한 다이스케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마침내는 세상이 새빨갱게 되었다. 그리고 다이스케의 머리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불길을 내뿜으며 회전했다. 다이스케는 머리가 다 타버릴 때까지 전차를 타고가려고 결심했다.(253)

온통 세상이 빨갱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느 누구 하나 그의 편은 없다. 다이스케 혼자만이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실로 전율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의식은 폭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머리가 다 타버릴 때까지 전차를 타고 가려는 결심이란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다이스케의 처절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다이스케의 분노의 외침인 것이다.

이것을 가메이씨는 ‘지적인간의 존재위기와 공허로부터 어찌면 울분의 마음으로 다이스케라는 무용한 인간을 그려냈다고 상상된다. 괴로운 祈願인 동시에自嘲인 것’<sup>27)</sup>이라고 논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통념을 과감히 벗어던진 다이스케를 무용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그의 행동을 자조적인 행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그것은 다이스케의 굳은 의지의 표출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세키의 결연한 선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소세키는 다이스케의 결단을 통해서 다지마의 친구처럼 세속적인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다이스케는 언제나 서재에서 보내며 신간마다 사서 읽고 있는 인물이다. 다이스케는 이러한 지성인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위선적인 삶, 히라오카와 다지마의 친구 같은 세속적인 속물의 삶을 단호히 배격하고 있는 것이다.

##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에서는 『그 후』의 주인공인 다이스케가 아버지 나카이 도쿠와 친구 히라오카에게 의절을 당하는 충격적인 선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위선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히라오카,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다이스케의 의식구조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27) 전계주 8) 『漱石作品論集成 第6卷』 p.14



본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소세키는 어떠한 대상이라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는 칸트의 사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며, ‘최대다수의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연의 인간화’를 추구하는 유교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며, ‘인간의 자연화’를 추구하는 노장사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의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세키는 ‘감자와 다이아몬드론’을 통하여 세속적인 삶을 경멸하며 고상한 도덕적 가치를 추구했던 자가 그 도덕적 가치를 손에 쥐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야하는 부조리한 현실세계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지고지순한 도덕적 가치를 갖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하기 힘든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키는 다이스케에게 그런 결단과 선택을 부여했다. 소세키의 이러한 선택은 아버지와 같은 위선적인 삶, 히라오카처럼 세속적으로 타락한 속물적인 삶, 다지마의 친구와 같이 세속에 동화되어가는 삶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고립시킨다 할지라도 ‘의지의 인간’이 되기보다 ‘자연의 아들’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다이스케는 소세키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뇌의 상징이다. 그가 ‘자연의 아들, 자연의 사랑’을 선택한 것은 원래의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이스케는 人爲的인 위선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無爲的인 본성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는 『그 후』의 다이스케를 통하여 최고의 도덕적 가치는 최대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나, 자유로운 인성의 인간을 인위적으로 규범하는 유교의 윤리관처럼 ‘進의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인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즉 인간본성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노장사상인 ‘歸의 사상’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소세키는 그 누구도 가지 힘든,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다이스케에게 걸어가게 하고 있다. 폭발직전의 심리상태로 전차를 타고 가는 다이스케의 모습을 그린 『그 후』의 마지막 장면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소세키의 참담한 심경을 토로한 소리 없는 절규이며, 그것은 처절하다 못해 차라리 경건한 고행의 길을 걷고 있는 구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이스케의 이 고행은 또한 소세키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후』는 소세키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진지함을 걱정적으로 쏟아낸 작품이라 하겠다.

## 【参考文献】

텍스트 : 夏目漱石(197) 『漱石全集第8卷』 岩波書店.

리찌어호우(李沢厚, 1990) 권호 訳 『華夏美学』 동문선 p.115

마이클 샌델(2011)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p.55, 149, 152, 171

신영복(2011) 『강의』 돌베개 p.253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서병훈 역(2011) 『공리주의』 책세상 p.40

푸페이룽(伝佩栄) 한정선 訳(2012) 『노자를 읽고 장자에게 배운다』知와사랑 p.8, 9

小林一郎(1991) 『夏目漱石の研究』至文堂 p.57, 71, 76

清水孝純(1998) 『漱石 そのユートピア的世界』翰林書房 p.16

太田 登, 木股知史, 万田 務 編(1991) 『漱石作品論集成 第6卷』 桜楓社 p.9, 150

夏目漱石(1979) 『漱石全集第7卷』 岩波書店 p.140, 141

夏目漱石(1979) 『漱石全集第21卷』 岩波書店 p.185

山本勝正(1989) 『夏目漱石文芸の研究』 桜楓社. p.106, 118

## 要 旨

以上のように本文で『それから』の主人公である代助が父の長井得と友人の平岡に勘当される衝撃的な選択は何を意味するのかという観点から偽善的な生き方と世俗的な生き方をする父と平岡、そしてそれを拒否する代助の意識構造をとおして考察した。

本文で考察したように漱石はどのような対象であっても目的ではない手段を使うことを断乎として拒否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それは「人間を目的で対せ」というカントの思想と一致したものであり、「最大多数の最大幸福」を追求する功利主義と対立している。またそれは東洋の支配談論である儒教思想に対する批判的な視覚であり、批判談論としての老荘思想に対する肯定的な視覚を意味することが確認できる。

漱石は「ポテトとダイヤモンド論」を通して世俗的な生き方を軽蔑し高貴で道徳的な価値を追求した自分がその道徳的価値を手に入れた瞬間、奈落の底に落ち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不条理な現実世界を究明して見せることにより、極めて高く、極めて純粋な道徳的価値をもって現実を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選択しがたい生き方であるかを示している。

『それから』で漱石は代助をと通して最高の道徳的価値を「最大多数の最大幸福」を追求する功利主義や自由な人格の人間を人為的に規範する儒教の倫理観のように「進の思想」にあるのではなく、根本の自然に帰る、すなわち人間の本性の回帰を主張する老荘思想である「帰の思想」にあることを力説しているのだ。漱石はその誰もが行き難い、そして誰も行かない道を代助に行かせている。爆発寸前の心理状態で電車に乗っていく代助の姿を描いた『それから』の最後の場面は不条理な現実に対する代助の惨憺たる心境を吐露した声なき絶叫であり、それは凄絶どころかかえって敬虔な苦行の道を行く求道者の姿だと言える。

代助のこの苦行は、漱石の生き方に対する真摯さを克明に表しているとも言える。したがって『それから』は漱石自身の生き方に対する苦悩と真摯さを激情のままに描いた作品であると言える。

キーワード：夏目漱石、それから、三四郎、老荘思想、カントの思想、  
自然本性、批判談論、ポテトとダイヤモンド

투 고 : 2013. 5. 31  
1차 심사 : 2013. 6. 15  
2차 심사 : 2013. 7. 6